

“5·18 암매장” 공수부대 73명 증언 확보

5·18 조사위, 2022년 하반기 활동보고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5·18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중 73명으로부터 암매장 관련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가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5·18 조사위를 망상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 암매장지조차 못 찾는 등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을 강행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특히 5·18조사위가 공수부대 출신 인사 76명으로부터 암매장과 관련한 증언을 확보했고, 특히 옛 광주교도소의 경우 9명이 암(가)매장을 지시하거

유해 추가 발굴 DNA 조사 중...간첩지목 사람도 5·18 무관 2년 조사 바탕 청문회 준비... ‘성과 없었다’ 오월단체 ‘머쓱’

나 직접 실행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월단체의 행동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5·18조사위가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2200여명과 접촉을 시도해 812명을 직접 면담했다.

이중 암매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한 계엄군은 73명에 달했고, 집단발포 현장에서의 저격수 활동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증

언한 계엄군은 20여명으로 확인됐다.

중복 건수를 제외하면 매장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확인된 암매장 장소는 13곳에 달하고, 암매장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계엄군은 35명에 이른다.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유해발굴도 진행됐다. 아직 5·18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3공수 3명의 증언을 토대로 진행된 발굴작업 중 옛 광주교도소 건너편 야산에서 유해 한구가 발견됐다.

본분이 없는 상태로 발굴된 이 유해는 20대 여성의 것으로 매장시기는 40년 전후라는 1차 육안 감식결과가 나왔다. 다만,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과 유해 바닥에 얇은 널빤지가 깔려 있던 점등을 토대로 5·18과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으나 유전자(DNA)검사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5·18조사위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두환 신군부의 5·18 왜곡·은폐 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간첩사건을 조작해 5·18과 북한을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다.

1980년 5월 25일 “광주 소요 선동 임무를 띤 남파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간첩 이창용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조사위는 당시 수사 경찰, 감·경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5·18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18조사위는 일부 극우단체가 ‘5·18 때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는 간첩 손성모씨도 5·18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손씨는 1980년 5월 4일 침투해 같은 달 8일 은신을 위해 무등산 약사암에 들렀으나 약사암이 공사중이어서 바로 전복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의 자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판결문 등에서 광주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5·18왜곡·유언비어는 조직적으로 만들어 졌고 예행연습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사위는 5명으로 구성된 청문회 소위원회를 꾸려 2년여 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주시, SRF발전소 항소 취하 2700억대 소송 6년 만에 종결

“실익 없다 판단 취하...난방공사 측과 전향적 협상할 것”

나주시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처분결정을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 빗가람혁신도시에 운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나주시는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으며 2021년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별도로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주시는 SRF 품질은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량권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난방공사 측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일 서울에서 열린 '104주년 3·1범국민대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운데)가 한·일간 합의 중단과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등을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본은 사죄하라” 양금덕 할머니 ‘24년의 외침’

‘윤석열 한일합의 중단’ 촉구 3·1범국민대회 참석 위해 상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할머니가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24년째가 된 1일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104주년 3·1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민모임 관계자와 뜻을 같이하는 광주시민 20명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3월 1일은 양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24년 전인 1999년 나고야지방법원에 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날이 바로 3월 1일이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벌였던 선배들과 같이 일본에 당당히 맞서자는 뜻으로 3·1절에 맞춰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3·1절에도 양 할머니는 90대 노구에 휠체어를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승소를 이끌어냈음에도 현재까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 커녕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 등으로 한·일간 합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할머니는 이날 대회 단상에서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는 돈은 천냥, 만냥이라도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회에 앞서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하는 서울 시민들’은 양 할머니에게 평화인권훈장을 수여했다. 부산에서도 수여식이 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는 부산 항일거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양금덕 할머니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시민 모금으로 만들어진 순금 훈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15·16일과 27·28일 두차례 진행된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3100인 1인 시위’에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강원,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529명이 참여해 양 할머니와 뜻을 같이 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GIST 부설 ‘AI 영재학교’ 2027년 개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가 2027년 개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존 영재학교 8곳에 더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와 충북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등 과학영재학교 두 곳을 2027년까지 개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영재학교를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원 초기 진학 트랙을 시범 도입한다.

과학고는 2년 조기졸업 후 대학 진학이 가능했으나, 과학영재학교는 졸업 학점제를 운용해 조기졸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영재학교 학생부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실적 등 영재교육 이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학기술원 입학전형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영재 발굴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등과학원 내 수확난제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마련할 허준이 수확난제연구소를 통해 수학 영재를 양성하고, 과학영재와 전문가 만남을 마련하는 등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